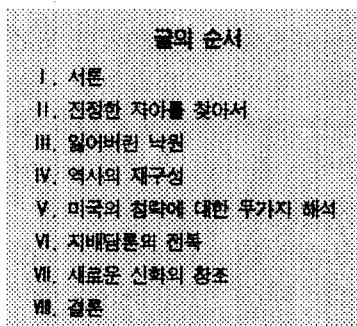


## 카몽이스(Camões)의 서사시연구\*

- 동양의 위상과 사랑의 주제를 중심으로 -

김창수(대구가톨릭대학교 서양어문학부)



### I. 머리말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1298)은 16세기까지만 해도 서유럽에서 계속 인기를 누렸던 동양안내서였다. 신대륙을 발견했던 크리스토발 콜론(콜럼버스)역시 첫항해중에 라틴어로 번역된 이견문록을 숙독하면서 70개 이상의 자기견해를 지면의 여백에다 써 놓았던 점을 감안<sup>1)</sup>하면, 그당시 동양은 유럽인들에게는 한결같이 진출하고 싶었던

\* 이 논문은 대구가톨릭대학교의 1999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과제임

1) 정운용, 김창수 공역; *동방견문록(마르코 폴로 원작)*, 을유문화사, 1993, p.7

이상향(El Dorado)이었다. 그결과 많은 항해가들이 바닷길을 찾아 모험을 감행했던 것이며, 이러한 동양을 찾아 나섰던 광적인 열풍은 바스쿠 다 가마(Vasco da Gama, 1469-1524)의 인도항로발견(1498)이 응변적으로 대변한다.

그리고 동양진출을 둘러싸고 스페인과 경합을 벌였던 포르투갈은 상기 인도항로를 개척함으로써 인도와 동남아는 물론, 중국과 일본까지 포함하는 아시아대륙을 상대로 서유럽문명의 전달자로 부상하면서, 통상에 의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거의 독점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서교역의 메카로서 포르투갈은 16세기를 통해서 고아(인도)-말라카(말레이반도) - 몰루카(인도네시아) - 마카오(중국)등을 연결하는 광대한 지역을 지배하면서 해상무역국이 되었다.

이처럼 약 80년간에 걸쳐 바다에서 모험을 무릅쓰며 백전불굴의 정신으로 이룩한 포르투갈민족의 계속된 승리와 업적을 한권의 대서사시로 구체화시킨 시인이 다름아닌 카몽이스(Luís Vaz de Camões)이다. 그는 천부의 시적 재능을 발휘하여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들을 모델로 삼으면서도 에게해(海) 및 지중해 문화권을 벗어나서, 대서양과 인도양 그리고 남지나해를 포용하는 세계적 공간을 작품의 무대로 펼치면서 포르투갈과 유럽의 역사 및 동양진출의 과정을 소개하는 한편, 그리스-로마신화를 절묘하게 결합한 인간중심의 세상을 방대한 시폭에 담았다.

실제로 그는 인도와 마카오에서 17년을 살면서 동양의 공기를 마시고 동양의 문물과 인간들을 상대하면서 걸작시 '우스 루지아다스'의 원고를 작성했음을 고려하면, 이 서사시는 동양의 산물(產物)이라 부를만 하다. 아울러 서사시의 바탕이 되는 역사적 사건들이 일반적으로 실상이 잔인하고 추악한 모습들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정적 사료(史料)들이 독특한 상상력과 고답적 문체속에 아름다움의 세계를 창조하는데 적절하게 활용되었음은 그의 탁월한 시적 천재성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 II. 포르투갈의 동양진출(발견과 정복의 잔인성)

여기서, 바스쿠 다 가마의 역사적 대항해를 시작으로 남 먼저 기회를 포착한 포르투갈이 인도를 포함한 동양을 지배하기 위해서 해적무역을 통한 철저한 제국주의정책을 해외진출의 기본으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바스쿠 다 가마의 성공적인 귀국과 함께 대발견의 희소식에 고무된 본국의 동 마누엘 1세(1469-1521)는 곧 이어 1500년에 제 2차 인도탐험대를 파견하였다. 바스쿠 다 가마의 추천<sup>2)</sup>에 따라 알바레스 카브랄 제독(Pedro Alvares Cabral, 1460-1526?)을 사령관으로 한 13척의 함대는 항해도중에 우연스럽게 브라질의 동부해안을 발견(1500.4)하는 행운을 얻었다.

그 결과로 포르투갈은 인도와 브라질을 동시에 경략해야 하는 막중한 모험을 안게 되었다. 그런데 브라질은 원주민 투피(Tupi)족이 왕조를 세웠다든가 문명을 일으킨 역사가 없는 미개인들이었기 때문에 정복과 식민사업에 따른 희생이 감당할만한 것이었고 그 반대 급부가 막대한 부(富)로 돌아온 한편, 원주민은 주인의식이 전혀 없었다.

이와는 반대로, 인도는 사정이 매우 부정적이었다. 먼저 희망봉을 돌아가는 바닷길이 잦은 태풍과 사나운 파도때문에 많은 선박들이 난파를 당하여 유능한 지휘관들과 선원들이 국력을 쏟아부어 만든 물자들과 함께 한순간에 사라지는 죽음의 여정이어서 포르투갈의 인구와 자금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손실이 매우 컸다<sup>3)</sup>.

그리고 인도는 찬란한 고유문화에다 무갈제국(1526-1858)이 바야흐로 국토통일을 이룩하던 시점이어서 그 세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으므로 포르투갈이 정면공격으로 정복의 야심을 펼칠 세력이 못되었다. 따라서 강력한 화력을 앞세운 포르투갈 함대는 교역을 하되, 여의치 않을시는 무력에 호소하는 해적행위를 자행할 목적으로 육지

2) João Ribeiro; *História do Brasil*, Livraria F. Alves, 1935, p.31

3) João Ribeiro; *Ibid.*, p.95

에서 떨어진 바다위에 선단의 해상요새를 유지하면서 인도해안의 원주민 항구들을 주로 괴롭혔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1505년에 초대 부왕(副王) 알메이다제독(Francisco de Almeida)은 우선 인도와의 통상을 독점하기 위해서 에집트의 술탄이 보낸 힘대를 인도양에서 섬멸(1509)하여 아랍권의 제해권을 찬탈하였으며, 이어서 1509년에 제2대 부왕으로 임명된 알부케르키(Afonso de Albuquerque, 1453-1515)제독은 인도의 고아(Goa)항구를 1910년에 점령하였고, 이어서 인도양의 스릴랑카와 동쪽으로 말라카(Malaca), 스마트라 등지를 정복하였다.

한편 포르투갈은 남지나해를 따라 북상하면서 1517년에 중국의 마카오(Macao)를 임의로 조차(租借)<sup>4)</sup>하였으며 1530년에는 상기 고아항구에 포르투갈 총독부를 옮겨 놓고서 인도와 동남아를 상대로 본격적인 해상무역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남지나해를 북상하면서 1543년 일본의 구슈남쪽에 위치한 섬 종자도(種子島)에 도달하였다.

여기에, 포르투갈은 대외명분으로서 동양과의 통상을 진흥하면서 이슬람에 반대하여 기독교를 전파한다고 선전하였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무자비한 행동으로 많은 적(敵)을 만들었다. 가장 적절한 사례로, 1541년에 부왕이 된 아폰수 디 소자(Martim Afonso Sousa, ?-1564)의 야만적 행적을 꼽을 수 있겠다.

그는 부왕이 되기전에 인도양의 포르투갈함대사령관으로 활동하면서 고아항구로 부터 가까운 디망(Damão)과 디우(Diu)를 점령하여 교두보로 삼았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이해안지역의 도시 왕국들을 협박하고 초토화하면서 황금과 영예와 천주의 포상을 함께 보장받는 수혜자가 되었다.

일찍이 그는 스페인의 살라망카대학을 졸업한 학자였지만 군인의 길을 선택한 모험가이자, 야심가였다. 청년기에 브라질파견함대 및 총독의 직함을 받고서 브라질에 진출(1530)하여 최초의 항구도시 상 비센티(São Vicente)를 건설(1532)하면서 인근의 상 파울루(São Paulo)도시의 기반을 닦으면서 순진무구한 원주민들을 ‘사냥의 대상’

---

4) 柴田 實의 2명 공저; 日本史, 文英堂, 1974, p.219

으로 취급하고서 무자비하게 추방하거나 토벌하는 야만성을 길렀다.

이와같은 경력은 인도해안과 부근의 섬들에서의 그의 야만적 약탈 행위에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왕실의 부채가 1543년에 518.537 세라핀(금화의 단위)에 달하였으므로 동 주양 3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인도양의 해적무역에서 외화벌이를 하도록 명령하였기 때문에 아폰수 디 소자는 오르무스(Ormuz)왕국의 세관을 포르투갈의 왕의 이름으로 점유하여 매년 100.000세라핀을 징수하는 외에 함대의 병력을 상륙시켜 인근해안들의 유명한 사찰과 탑들을 유린하고 파괴하면서 금과 보석들을 마구잡이로 수탈하였다<sup>5)</sup>. 이처럼 포르투갈이 동양진출과정에서 저지런 여러 가지 만행을 카몽이스는 어떻게 수용했는지가 필자의 관심있는 논구의 대상이 되겠다.

### III. 시인의 생애

그럼, 여기서 이시기를 함께 살았던 카몽이스는 자신과 조국을 위해서 이상의 역사적 상황을 어떻게 적응하면서 활동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그는 포르투갈에서 출생지는 미상이나 1524년경에 출생하였으며, 한편 1580년에 받던 연금이 중단된 것을 근거로 하여 이해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55-6세를 살면서 인도와 마카오 등지에서만 17년을 살았던 아시아통(通)의 대시인이지만, 오늘날 포르투갈에서는 자국의 옛문화(르네상스문화)를 집약해서 승화시킨 국보적 시성(詩聖)으로 추앙한다.

먼저, 그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성명은 Simão Vaz de Camões 와 Ana de Sá 로 알려져 있다. 원래 북쪽의 갈리시아 지방 출신이지만, 일찍이 포르투갈로 귀화하여서 왕실의 총애를 받았다고 전한다<sup>6)</sup>. 한편 코임브라(Coimbra)대학도시의 산타 크루스 수도원장

5) Reinold Schneider; Camões, Editôra Herder, 1967, São Paulo, p.106-109

6) Massoud Moisés; Lírica, de Camões, Cultrix 1963, São Paulo, p.9-10

이었던 삼촌(Pe. D. Bento de Camões)의 배경으로 아들 카몽이스는 왕실출입과 대학장의실의 청강이 자유로웠으며, 이시기를 통해서 비록 대학졸업은 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로마문화,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수입된 Homero, Horacio, Ovidio, Virgilio, Petrarca, Sannazaro, Boscán, Garcilaso 등의 시(詩)세계를 두루 섭렵하면서 시의 재능을 갈고 닦았다.

그런 한편에서 그는 천진스러운 학생이 못될 만큼, 다혈질에다 여성편성이 심했던 방랑성의 청년으로 귀족의 딸들과 많은 스캔들과 싸움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아프리카 전선(Ceuta)으로 추방(?)되어 일반 사병으로 모로족과의 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오른쪽 눈을 상실한 그는 실의에 빠진 몸으로 리스보아로 귀환하게 되었으며, 한편 주변의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생활을 하였다. 그것은 방종과 몸싸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남의 편지를 써주거나 시(詩)를 발표해서 받는 수입이 변변치 못했기 때문이다.

1552년 1월에는 친구 두명이 몸싸움을 벌이는 왕실근무의 관리(Gonçalo Borges)를 자기가 끼어들어 부상을 입히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 때문에 그는 일단 교도소 신세가 되었지만, 피해자가 '전도가 양양한 젊은이를 용서한다'는 서한을 법원에 제출하여 1553년 3월에 석방되었다. 그러나 해외식민지(인도)로 가서 병역에 종사하라는 유형(流刑)명령이 조건으로 첨부되었다.

그리하여 카몽이스는 같은 해 12월 하순에 인도에 도착하였는데, 동양은 바로 그가 야성대로 살면서 야심을 채울 수 있는 신천지였다. 그러니까 아폰수 디 소자 부왕이 맹활약했던 직후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는 1556년 현역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인도에 잔류하면서 비록 생활은 궁핍했지만 동양의 견문을 넓혀 나갔다. 그러는 중에 바레투총독(Francisco Barreto, 재임기간1555-59))의 지시로 마카오로 건너가서 사망자 및 실종자들의 유품관리관의 직책을 맡기도 했다.

이곳에서 3년간 지내면서 중국인들의 관습과 문화를 직접 알게 되

었으며, 한편으로 서사시(*Os Lusíadas*)의 원고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애국심과 사랑 그리고 자신도 몸담고 싸웠던 포르투갈 군대의 용맹 스러운 위상을 시적 상상력으로 승화시켰다. 특히 그는 많은 여성을 편력하면서도 중국계 미인을 선호했던 사실이 그의 소네트<sup>7)</sup> 속에서 디나메니(Dinamene)란 이름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후에 그는 고아(Goa)로 귀환하지만 공금횡령 혹은 체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투옥되는 불행이 기다렸다. 그러나 친분이 있던 부왕(副王)(Francisco Coutinho)의 도움으로 방면(1563)되었으며 이때부터 권력의 배경을 업고서 가장 순탄한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물론 자작시집도 출간하였다. 그리고 1567년 귀국길에 오르면서 다시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만, 마침내 1570년 4월에 리스보아에 도착하였다.

포르투갈에는 그의 노모(老母)가 궁핍속에서 아직도 생존해 있었고, 그 역시 빈손으로 휴대품은 대서사시 원고와 인도네시아 원주민 하인 1명이 전부였다. 하지만 동 세바스티앙(D.Sebastião)왕의 윤허를 받아 ‘우수 루지아다스’를 출간하였다(1572). 그후 가난속에서 어렵게 살다가 8년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IV. 서사시 ‘우스 루지아다스’의 작품론

##### 1. 작품의 출처(고전작품들과 서정시인들 및 역사가)

- (1) 일리아드, 오딧세이, 에네이да(그리스-로마 신화 포함)
- (2) 오비디오, 페트라르카, 후안 보스칸, 가르실라소 데 라 베가 등 서정시인들
- (3) 페르낭 디 카스타네다(? -1559)의 ‘인도 발견 및 정복사’
- (4) 주앙 디 바로스(1496-1570)의 ‘포르투갈의 해외발견 및 정복사’<sup>8)</sup>

---

7) Massoud Moisés; Ibid., p.134-135

## 2. 작품의 구성과 형식

- (1) 영웅서사시 틀속에서 고매하고 장중한 문체로 일관
- (2) 총 10장으로 구성(8.816 개의 시행(詩行)을 수록)
- (3) 시행들은 가르시라소 풍으로 11음보의 8행시의 연(聯)으로 묶음
- (4) 사건진행에 프래쉬-백(flash-back)기법을 적용
- (5) 서사시의 진행에 수시로 서정시를 삽입하여 인본주의 강조

## 3. 작품의 구성요소들

- (1)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항로 개척을 주된 줄거리로 도입.
- (2) 자신('근대인')의 박식함을 담은 많은 에피소드의 소개.
- (3) 서양사, 해양학, 천문학 등을 통한 과학정신을 강조.
- (4) 자신의 서정시들을 첨가하여 인간적 사랑과 고민을 표출.

## 4. 작품의 분석과 평가

이 서사시는 서양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문예부흥기의 문명, 고쳐 말하면 16세기의 서양사에서 일어난 근대문명의 산물이다. 구체적으로, 이시기에 농노 및 가내숙련노동에 기반을 두었던 봉건적 신정(神政)정치의 사회제도는 새로이 나타난 중상(重商)주의를 환영하는 사회에 자리를 양보하게 되었고, 이어서 통상과 금융제도가 생겨나면서 근대자본주의가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16세기에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항해가들이 대서양으로 진출하여 신세계를 발견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바스쿠 다 가마는 아프리카의 남단(희망봉)을 우회하여 인도에 남먼저 도착(1498)하면서 아시아지역은 포르투갈이 일차로 통상과 정복

---

8) Francisco da Silveira Bueno; El comentario de Os Lusíadas, Edição Saraiva, 1959, p.31-45

을 독점하는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풍토와 새로운 언어들 그리고 새로운 문화들에 관한 지식은 서양인들에게 오만스런 지배의식을 고취하였고 그 결과로 인간이 바로 만물의 척도가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고취하였다. 이러한 시대사조에 빠졌던 이 시인은 포르투갈인들의 주체정신을 끌어 내어 민족자존의 정신을 강조한다.

### 1) 애국심의 고취

카몽이스는 영웅서사시 형식속에서 '근대인들', 즉 세상의 끝이라 간주되어 금역으로 통했던 토르멘토리오 곳(희망봉)을 비롯한 중세의 낡은 신화를 타파하고, 신천지를 발견하고자 미지의 세계에 도전했던 인간들을 자신의 조상들(Os Lusíadas)을 모델로 하여 구체화하였다. 따라서 용감무쌍했던 포르투갈의 용사들이 해외에서 이룩한 공적들과 그로부터 유래한 명성을 찾아 보려고 바닷길관광을 떠나는 자세로, 매우 낙관적이고 자신감에 찬 기분으로 시인은 먼저 자기민족의 궁지와 우월성을 앞세우며 시를 펼친다.

백전연마의 명성이 드높은 용사들이  
As armas e barões assinalados  
루지타니아의 서해안에서  
que, da ocidental praia Lusitania,  
앞서 항해한 적 없는 바다를 가로질러  
Por mares nunca de antes navegados,  
멀리 타프로바나 너머로 진격하여,  
Passaram ainda além da Taprobana  
인간의 힘으로 감당못할 치열한 전투와  
Em perigos e guerras esforçados,  
위험을 무릅쓰며 먼 이방인 세상에서  
Mais do que prometia a força humana  
저렇게도 고매한 새 왕국을 세웠구나. (I, 1)  
E entre gente remota edificaram  
Novo Reino, que tanto sublimaram.(I, 1)

그리하여 신앙과 왕국의 영역을 넓히면서

E também as memórias gloriosas  
 아프리카, 아시아의 악(惡)에 물든 땅을 짓밟은  
 Daquêles Reis que foram dilatando  
 제왕들과 용감한 공적으로 죽음의 계율에서  
 A fé, o Império, e as terras viciosas  
 풀려난 위인들의 영광에 찬 기억들을,  
 Da África e de Ásia andaram devastando,  
 이에 걸맞는 재주와 숨씨가 도와 준다면,  
 E aqueles que por obras valerosas  
 나는 노래로써 온누리에 펴 보이리. (I, 2)  
 Se vão da lei da Morte libertando:  
 Cantando espalharei por toda parte,  
 Se a tanto me ajudar o engenho de arte. (I, 2)

이렇듯이 새로운 도전정신이 팽배했던 16세기의 풍조속에서 포르투갈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함과 아울러 상대적으로 동양은 아프리카와 더불어 미신과 주술이 판치는 야만의 땅으로 취급하면서 기독교로 계몽함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포르투갈민족의 탁월한 애국심의 표본을 스페인의 대군을 격파했던 알주바로타(Aljubarrota)전투의 영웅 누누 알바레스(Nuno Alvares)장군을 통해 확인한다. 즉, 그의 발언을 빌려서 강력한 스페인군사에게 위축되어 버린 현장의 휘하참모들을 용전분투하게 만든 감동적 연설을 소개하여 자기민족의 용맹성을 과시한다.

“어떻게? 고귀한 포르투갈 백성중에 애국적인  
 Como! da gente ilustre portuguêsa  
 전투를 마다할 자가 있어서야 될 말인가?  
 Há-de haver quem refuse o patrio Marte?  
 고귀한 강산에서 전쟁으로 빼가 굽은 사내들이  
 Como! desta província, que princesa  
 어찌하여 이꼴인가? 포도아인의 기개와 신앙과  
 Foi das gentes na guerra em toda parte,  
 사랑 그리고 힘과 기예를 부인하면서 왕국이  
 Há-de sair quem negue ter defesa?  
 스스로 굴복함을 보고싶은 자, 있으면 나서라.”(IV,15)

Quem negue a fé, o amor o esforço e arte  
De português, e por nenhum respeito  
O próprio Reino queira ver sujeito?(IV,15)

“고매하신 왕을 모시게 된 터에 그대들이 지금의  
Rei tendes tal que, se o valor tiverdes  
추대한 왕과 버금가는 용기를 가졌다면, 이미  
Igual ao Rei que agora alevantastes,  
격렬한 인간들 보다 더욱 크게, 원하는 바를  
Desbaratares tudo o que quiserdes,  
분쇄해야 할 상황인데, 이러함에도 끝내 너희들이  
Quanto mais a quem ja desbatastes.  
갖고있는 그 공포심을 떨치고 궐기하지 않는다면,  
E se com isto, enfim, vos nao moverdes  
쓸데없는 근심속에 두 손들을 뜯어 둘 일이다.  
Do penetrante medo que tomastes,  
내 훌로 적군의 명예를 찢어 버리겠노라.”(IV,18)  
Atai as maos a vossa vao receio,  
Que, eu só, resistirei ao jugo alheio.(IV,18)

“이같이 누누장군이 부하들을 독려하며 힘을 주니  
Destarte a gente força Nuno,  
그의 마지막 훈시를 듣고서, 모두들 가슴을 열어붙게  
Que, com lhe ouvir as últimas razões,  
만든 결맞지 않는 비겁한 두려움을 털어버리며  
Removem o temor frio, importuno,  
넵튠의 동물을 타고서 투창을 휘두르고 휘저으며,  
Que gelados lhe tinha os corações,  
이렇게 돌격속에 입을 열어 함성을 올부짖었구나.  
Nos animais cavalgam de Netuno  
-우리를 해방시켜 줄, 고명하신 대왕 만세!-”(IV,21)  
Brandinho e volteando arremessoes;  
Vão correndo e gritatando, a bôca aberta:  
-Viva o famoso Rei que nos liberta!-(IV,21)

이상은 1385년 8월 스페인왕이 군대를 이끌고 포르투갈의 왕위를 친탈할 목적으로 침입하였지만, 동 쥬앙1세의 포르투갈 부대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최후의 승리를 거둔 실제상황을 소개한 도입부분이다. 또한, 이서사시가 계속 전개되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시인은 포르투갈 기사들의 용맹을 영국에서 벌친 이야기까지 삽입하여 자기민족의 너그러운 도량과 우월성을 과시하였다.

그러니까 왕권을 공고히 다진 동 쥬앙I세 시절에 영국에서 귀부인들이 무례한 12명의 기사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소식을 전해들은 12명의 포르투갈 용사들이 바다를 건너 런던으로 찾아가서 문제의 영국기사들과 한판 경기의 마상결투를 벌인 끝에 이겨서 귀부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는 허구의 얘기지만, 시인의 탁월한 시적 상상력은 혐오감을 주지 않으면서, 독자로 하여금 재미있는 이벤트로 즐기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특히 결투장면의 사실적 묘사는 현장감을 자아내는 압권이다.

말이 줄달음치니 지면(地面)이 전율하고 모두의  
Dos cavalos o estrépito parece  
가슴속에 뛰는 심장이 흥분과 두려움으로 차누나.  
Que faz que o chao debaixo todo treme;  
어떤 기사는 말에서 떨어지지 않은채, 날아가고  
O coração no peito que estrmece  
어떤 기사는 말과 함께 땅에 넘어져 신음하며,  
De quem os olha, se alvoroça e teme.  
어떤 기사는 백색의 무기를 피빛으로 칠갑하는 중에  
Qual do cavalo voa, que nao dece.  
어떤 기사는 말잔등에 벌렁 누운채 투구의 관모로  
Qual co'o cavalo em terra dando, gême;  
말 궁둥이를 스치기도 하는구나. (VI, 64)  
Qual vermelhas as armas faz de brancas;  
Qual co'os penachos do elmo açouta as ancas.(VI, 64)

현장에서 어떤 기사는 생사(生死)의 간격을 좁히면서

Algum dali tomou perpétuo sono  
영원한 잠에 들었구나. 어떤 말은 주인없이 치닫는데,  
E fez da vida ao fim breve intervalo;  
저쪽에는 말없는 기사가 홀로 서 있구나.  
Correndo, algum cavalo vai sem dono,  
영국의 자만심이 왕좌에서 떨어지니 이, 삼명의 기사가  
E noutra parte o dono sem cavalo.  
결투장밖으로 퇴장하고, 칼싸움을 벌일 기사들은 다만  
Cai a soberba Inglesa de seu trono,  
갑주와 방패와 그물쪼끼만 걸쳤구나. (VI, 65)  
Que dous ou três já fora vão do valo.  
Os que de espada vem fazer batalha,  
Mais acham já que arnês, escudo e malha.(VI, 65.)

모질게 내리치며 무참히 찍어대는 숨막히는 무술의  
Gastar palavras em contar extrmos  
솜씨를 다 얘기함은 말(言)의 낭비라. 잠꼬대같은  
De golpes feros, cruas estocadas,  
꾸민 말로 시간을 낭비함은 얘기꾼들에게나 걸맞겠소.  
E desses gastadores, que sabemos,  
고상하고 영광스런 쾌거에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고  
Maus do tempo, com fábulas sonhadas.  
귀부인들이 승리자가 되어 명예를 안게 된 것으로 이제  
Basta, por fim do caso, que entendemos  
내 얘기를 끝내는 것이 좋겠구려.(VI, 66)  
Que, com finezas altas e afamadas,  
Cos nossos fica a palma da victória  
E as damas vencedoras e com glória.(VI, 66)

프랑스의 샤를마뉴대제(742-814)가 거느렸던 12기사들의 행적을  
모티브로 하여 포르투갈에도 일찍이 12기사가 있었음을 허구일망정  
카몽이스가 형상화해 놓은 삽화이다. 이렇게 그는 역사 속의 사건과  
허구의 사건을 융합하여 자신의 시(詩)세계를 만들어 내는 대시인이  
었다. 그는 포르투갈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자신의 시적 상상력을 무  
한대로 확장할 줄 알았던 문호였다.

역사적으로, 상기 동 쥐앙 I세(1385-1433) 치세중에 포르투갈은 국

력이 통일되어 마침내 해외로 눈길을 돌릴 수 있었다. 그리하여 먼저 아프리카를 침입하여 세우타Ceuta를 점령(1415)하고서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항로개척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리고 동 쥬앙 2세(1481-95)는 콜럼버스의 내방을 받아 그의 '서쪽으로의 항해계획'을 설명을 듣고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바르톨로메 디아스를 파견하여 희망봉을 발견(1487)함으로써 인도로 가는 길목을 확보하였으며, 그뒤를 이어 동 마누엘 1세(1495-1521)는 바스코 다 가마에게 함대를 맡겨서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여는데 성공(1498)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포르투갈민족의 고초와 희생은 너무도 컸다.

카몽이스는 제왕들이 왕권유지와 영토확장의 야욕에 눈이 멀어서, 당시에 150여만명에 불과했던 열세한 백성들<sup>9)</sup>을 '인간의 힘으로 감당못할' 모험과 치열한 전투장으로 몰아세웠던 무모함을, 그의 서사시 속에서 '레스텔루'해안에 거주하는 노인의 입을 통해 고발함으로써 민중의 고통에 동참하는 아량이 넓은 교양인이기도 했다.

명성이라는 이름의 헛된 허영에서 오는,  
O glória de mandar, o va cobiça  
오, 허황된 야망이여, 그리고 지배욕이여!  
Desta vaidade, a quem chamamos Fama!  
영예라 호칭되는 인기에 자극당하는,  
O fraudulento gosto, que se atica  
오, 부질없는 희열이여! 그대를 무척이나  
C'uma aura popular, que honra se chama!  
좋아서 따르는, 이런 분별없는 가슴에다  
Que castigo tamanho e que justiça  
얼마나 무서운 죽음과 위험, 또 고통을 안겨주며  
fazes no peito vão que muito te ama!  
그들에게 지독한 잔인성을 실험까지 하는고!(IV, 95)  
Que mortes, que perigos, que tormentas,  
Que crueidades neles experimentas!(IV,95)

---

9) Reinold Schneider; Ibid., p.24

마음과 생활을 불안케 하는 잔인한 원천이며  
Dura inquietação da alma e da vida,  
유기(遺棄)와 간통의 발단이자, 농장과 왕국과  
Fonte de desamparos e adultérios,  
제국(帝國)마저 허물어 버리는 영악한 파괴자로  
Sagaz consumidora conhecida  
이름난 너! 너를 두고서 고매하며, 고명하다고  
De fazendas, de reinos e de impérios!  
부르지만, 너에게는 수치스런 파렴치가 적격일세.  
Chamam-te ilustre, chamam-te subida,  
그런데도 무지한 인간들이 그 이름에 현혹되어  
Sendo dina de infames vitupérios;  
너를 명성이며 지존의 영예라고 외쳐 대는군!(IV, 96)  
Chamam-te Fama e Gloria soberana,  
Que triunfos? Que palmas? Que vitórias?(IV, 96)

이 왕국과 백성들을 또 다시 어떤 재앙으로  
A que novos desastres determinas  
끌고 갈 작정이냐? 허울좋은 이름을 앞세워서  
De levar estes Reinos e esta gente?  
무슨 위험과 죽음을 예비할 속셈이냐? 대관절,  
Que perigos, que mortes lhe destinas,  
무슨 왕국을 또 광산과 황금노다지를 그렇게도  
Debaixo dalgum nome prementes?  
쉽게 일군다드냐? 그들의 명성을 약속하였다며,  
Que promessas de reinos e de minas  
어떠한 역사? 어떤 승리? 그리고 어떤 월계관?  
De ouro, que lhe farás tão facilmente?  
어떤 개선(凱旋)이란 말이냐?(IV, 97)  
Que famas lhe prometerás? Que histórias?  
Que triunfos? Que palmas? Que vitórias?(IV, 97)

이상의 내용은 고향땅에 집착하여 모험을 싫어하던 당시 포르투갈  
인들의 보수적 성향을 반영한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지만, 청장년총  
의 인력이 해외로 대거 송출되는 현실을 우려한 시인의 경고적 메세  
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아울러 미지의 바다로 떠나가는 사람들의 목

숨을 건 모험이 안겨주는 불안과 고독을 어두운 어조로 읊조리면서, 전통적 영웅서사시들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저자의 서정적 목소리를 삽입하여 전통적 영웅서사시를 보통인간들의 눈높이로 끌어 내렸다.

바다에는 저리도 많은 폭풍과 위험이  
No mar, tanta tormenta e tanto dano  
저렇듯 구비마다 죽음을 매설해 놓았고,  
Tantas vezes a morte apercebida;  
지상에는 저토록 많은 전쟁과 기만과  
Na terra, tanta guerra, tanto engano,  
허구많은 궁핍이 있으니, 지긋도 하구나!  
Tanta necessidade avorrecida!  
허약한 인간은 어디에 의지해 짧은 인생을  
Onde pode acolher-se um fraco humano,  
보전할 것이며, 지상의 미물(微物)에게  
Onde terá segura a curta vida,  
하늘이 멀쳐서서 화내는 일이 없이 항상  
Que não se arme e se indigne o Céu sereno  
따뜻이 대해줄 땅은 도대체 어디메뇨?(I, 106)  
Contra um bicho da terra tão pequeno?(I, 106)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스쿠 다 가마의 지휘를 받던 포르투갈 함대는 벨렝(港)을 떠나 망망대해를 누비며 인도항로를 찾아 나선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오림푸스 산정(山頂)에서 이광경을 내려다 보던 주피터와 많은 신(神)들은 장차 동양에서 일어날 일들을 우려하면서 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비너스와 그녀의 애인 마르스(Marte)는 포르투갈 함대의 항해를 돋자고 하는데, 주신(酒神)바커스는 동양에서의 그의 명성이 흐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반대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포르투갈선단이 희망봉을 우회하여 아프리카 동해안의 여러 도시왕국들을 거치게 되지만, 여기에서 바스쿠 다 가마는 바커스의 계략으로 현지 원주민들과 그 왕(王)들의 매복에 유인당하여 죽을변 한다. 즉, 모잠비크섬과 캐냐의 몸바싸 항구 등을 차례로 입항하였다가 함정에 빠져 버린다.

그러나 비너스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탈주하여 아프리카의 마지막 기항지 멜린디에서 비로소 밑을만한 현지 왕의 영접을 받으며 안심한다. 그리고 환대에 대한 보답으로 ‘플래쉬-백’기법으로 장면들을 옛날로 소급시켜서, 포르투갈왕국의 도읍과 내력을 출발점으로 해서 도착시점까지 여행중에 바다에서 겪었던 사건들을 박진감 나게 들려준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시인이 사건들의 결합, 즉 적절한 플롯을 통해 이서사시를 전개함으로써 매우 현대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박진감을 발휘한 점이다. 그리고 많은 삽화들중에서 바다의 괴물 ‘아다마스토르’의 목격담은 너무도 유명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구의 억센 괴물이 눈앞의  
Não acabava, quando uma figura  
하늘에 나타났으니, 일그러진 모습에 키가 한없이 컸고  
Se nos mostra no ar, robusta e válida,  
험상궂은 얼굴에다 더러운 턱수염, 움푹파인 두 눈과  
De disforme e grandíssima estatura  
소름끼치는 고약스런 몰골하며, 흑갈색의 창백한 표정에  
O rostro carregado, a barba esquálida,  
흙이 잔뜩 묻은 머리털이 쭈뼛쭈뼛 솟아 나 있었고  
Os olhos encovados, e a postura  
새까만 입안에는 누런 이빨이 박혀 있었나이다.’(V, 39)  
Medonha e má e a cor terrena e pálida;  
Cheios de terra e crespos os cabelos,  
A boca negra, os dentes amarelos.(V, 39)

‘그런중에 괴물은 이렇게 밀을 걸어 왔나이다.  
E disse: ‘O gente ousada, mais que quantas  
“오, 세상의 큰 일을 벌인 많은 인간들을 합친것 이상으로,  
No mundo cometaram grandes cousas,  
방자한 인간들아, 수없는 혹독한 전쟁과 허망을 찾아서  
Tu, que por guerras cruas, tais e tantas  
결코 휴식할 줄 모르는 너희는 금하는 법을 깨트리며,

E trabalhos vaos nunca repousas,  
진 세월을 내가 지키고 간직하며 남의 배(船)든, 내 배든  
Pois os vedados términos quebrantas  
지나간 일 없는 이바다를 감이 항해하려 덤비누나.'(V, 41)  
E navegar meus longos mares ousas,  
Que eu tenho tempo há já que guardo e tenho  
Nunca arados de estranho ou próprio lenho:(V, 41)

"그래, 너희는 불멸의 드높은 공적을 세운  
Pois vens ver os segredos escondidos  
어떤 위인에게도 허락된 적 없는 자연과 바다의  
Da natureza e do húmido elemento,  
은밀한 비밀을 보자고 온 것이지!  
A nenhum grande humano conhecidos  
참혹한 전쟁을 통해, 지금 지배하겠다고 탐하는  
De nobre ou de inmortal merecimento,  
그 바다와 땅을 찾는 너희의 방자한 만용(蠻勇)에  
Ouve os danos de mim que apercebidos  
내가 맞서 벌일 저주를 들어 보라.'(V, 42)  
Estão a teu sobrejo atrevimento,  
Por todo o largo mar e pola terra  
Que inda hás-de sojugar com dura guerra.(V, 42)

'너희가 범하고 있는 이같은 항해를 앞으로  
Sabe que quantas naus esta viagem  
감행할 모든 선박들이 그 무모함으로 해서  
Que tu fazes, fizerem, de atrevidas,  
엄청난 태풍과 폭우를 만나 악마의 종착점으로  
Inimiga terão esta esta paragem,  
나가 떨어질 것임을 새겨 들어야 할것이야.  
Com ventos e tormentas desmedidas!  
경험한 적 없는 이런 큰 파도를 헤치며 항해할  
E da primeira armada, que passagem  
첫 함대에 대해서도 위험을 채 느끼기 전에  
Fizer por estas ondas insofridas,  
피해가 막심하게끔 한순간에 박살을 낼것이야.'(V, 43)  
Eu farei, de improviso, tal castigo

Que seja mor o dano que o perigo!(V,43)

여기의 ‘아다마스토르(Adamastor)’는 그 자신의 설명대로 ‘토르멘토리오’ 곳(串)으로서 신화에서는 타이탄 족의 일원으로 주피터에게 대항하였다가 패배하여 바다속에 잠겨서 꿈쩍못하는 신세로 전락한 처지가 된 나머지, 후에 희망봉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거인인데, 시인은 그를 의인(擬人)화해서 중세이래로 넘어가지 말라던 상기의 갑(岬)을 통과함으로써 보여준 르네상스인들의 자신(自信)만만한 도전정신과 이에 맞서는 자연으로 둔갑한 신(神)들의 거부의지를 사실적으로 대치(對峙)해 놓았다.

계속해서 시인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tornado)태풍을 이미 박진감나게 묘사(V, 17-23)하였으며, 바다의 현상들을 이처럼 극적으로 형상화하는데 괴재(怪才)를 발휘하였다. 도깨비불(번갯 불)과 바다의 물기둥현상을 의인화해서 표출하는 과정에서 그는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의 현장경험을 도외시한 연구태도를 비판하였다.

한편 바스쿠 다 가마는 멜린디의 착한 왕으로 부터 인도를 아는 해로안내인과 식량을 얻어 배에싣고서 인도로 가는 마지막 탐험을 나선다. 하지만 바커스의 농간으로 바다의 요정들과 바람의 신(神)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태풍에 휩싸여 다시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되지만, 비너스가 마침 이사태를 발견하고서 바다로 내려와 위기의 함대를 구조한다. 이것은 신(神)의 영역에 도전하는 인간들의 무모함을 또다시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선을 넘어 항해선단은 원하던 인도의 캘리콧(Calecut)항에 마침내 도착하지만, 사모리(Samori) 현지왕과 그 신하들은 포르투갈인들을 적대시한다. 이들의 함포로 무장한 위풍당당함에서 고도의 신문명을 확인함과 아울러 짐승내장으로 점(占)을 치는 점술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바스쿠 다 가마의 도착이 불길한 징조라고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을 끌면서 상호이해와 물물교환의 통상을 피해 보지만 성과가 없자, 포르투갈인들은 협상을 포기하고서 몇가지 토산품(향료)과 약간명의 원주민을 배에싣고 귀국길에 오른다.

## 2) 시인의 상상력과 동양의 위상

카몽이스가 실제로 유배형을 받아 인도에 도착한 것은 앞장(章)에서 소개된 바 있는 마르팅 아폰수 디 소자(? -1564) 부왕의 재임기간이 끝난지 8-9년뒤의 시점이 된다. 따라서 포르투갈함대의 약탈행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였다. 그는 병사로서 '피멘타'섬(Ilha de Pimenta)원정에 참가하여 무고한 현지민들을 학살하면서 값진 물건들을 약탈하는 일에 무관할 수 없었으며, 기타 유사한 많은 전투에서도 비인도적 만행의 공범자가 되었다.

현지의 분위기가 이미 1500년을 전후한 바스쿠 다 가마의 근엄했던 시절이 아니었으며, 부정과 탐욕이 지배하는 악육강식의 퇴폐풍 조가 극(極)에 달하였다. 군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명령에 쫓아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 카몽이스는, 그러나 그와같은 냉혹한 상황들을 뒤돌아보며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다정다감한 시인이었기 때문이다.

참담한 현실과 자신이 꿈꾸는 사랑과 평화가 깃든 세상간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난국에 빠진 시인은 궁리끝에, 결국 시(詩)적 상상력을 통해 신화의 세계에서 은신처를 찾았다. 올림푸스의 신(神)들은 감정의 노예가 되어 난폭함과 부정을 일삼는 주인공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들을 삽입하여 인간들의 잔학성을 중화시키는 효과를 창출하고자 꾀하면서, 여기에 미학적 사랑의 세계를 덧붙여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꾸었다.

그래서 카몽이스의 신화적 변신(metamorfosis)은 이서사시의 도덕성과 더불어 포르투갈민족의 해외정복과정을 긍정적으로 조망하도록 독자를 유도한다. 무엇보다 그는 동양에서 기독교의 포교에 민족적 대의명분을 내세워 포르투갈민족의 입장은 합리화하면서 유럽의 이웃민족들이 기독교세계안에서 벌이는 반역행위를 강하게 규탄하였다.

인더스강과 지상의 낙원속의 간지스강사이에  
Já se viam chegados junto à terra,

가리워진 채, 저토를 많은 인간들에게 동경받던  
Que desejada já de tantos fôra,  
땅의 옆구리에 마침내 도달하였네. 하나 이봐!  
Que entre as correntes índicas se encerra  
전쟁에서 마냥 승리의 월계수를 얻고자 애쓰는  
E o Ganges, que no céu terreno mora,  
강인한 사람들아! 그대들은 결국 도착했으니,  
Ora sus, gente forte, que na guerra  
부(富)가 넘실대는 땅을 눈앞에 보게 되었구나!(VII, 1)  
Quereis levar a palma vencedora:  
Já sois chegados, já tendes diante  
A terra de riquezas abundante!(VII, 1)

루지타니아인들아,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A vós, ó geração de Luso, digo,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속된 세상이 아니라,  
Que tão pequena parte sois no mundo,  
천국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천주의 자상한  
Não digoinda no mundo, mas no amigo  
울타리안에서 너무도 작은 뜻에 불과하지만,  
Curral de Quem governa o Céu rotundo;  
그대들은 이교도들의 정복에 어떤 위험스런  
Vós, a quem não sómente algum perigo  
방해도, 또 하늘의 근본에 의지하고 계시는  
Estorva conquistar o povo imundo,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탐욕이나 불경에 찬  
Mas nem cobiça ou pouca obediência  
유혹을 받지 아니 하였노라.(VII, 2)  
Da Madre que nos Céus está em essência;(VII, 2)

그대들, 약한 힘을 슬퍼하지 않는 용사들아!  
Vós, portuguêses, poucos quanto fortes,  
용맹한 위업에 비해 너무도 근소한 민족이나,  
Que o fraco poder vosso não pesais;  
술한 죽음을 치루며 영생의 율법을 전파하려는  
Vós, que à custa de vossas várias mortes,  
포루투갈인들이여! 그대들, 수효는 비록 적지만

A lei da vida eterna dilatais;  
 하늘로부터 가톨릭세계에서 이토록 많은 일을  
 Assi do céu deitadas são as sortes  
 감당토록 운명지워 졌으니. 오, 그리스도여!  
 Que vós, por muito poucos que sejais,  
 당신은 미천한 저들을 크게 고무해 주셨구려.(VII, 3)  
 Muito facais na santa Cristiandade,  
 Que tanto, ó Cristo, exaltas a humildade!(VII, 3)

이상은 바스쿠 다 가마의 함대가 인도 땅을 발견한 순간, 바다위에서 시인이 포르투갈인들에게 갈파한 거룩한 사명으로서, 천주의 맷세지를 전달하는 장면이다. 기독교의 동양선교에 무관심하면서 교회내분을 일삼는 독일인(마틴 루터)과 기독교이름으로 정치적 야심을 채우려는 프랑스 왕(프란시스 1세)과 가톨릭교회에서 분리하여 성공회 수장이 된 영국 왕(헨리 8세) 등을 비난하면서도 포르투갈 왕과 그 민족이 감행한 해외진출에 따른 사명을 일깨워 주고 있다.

반면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유럽민족들이 국내에서 경쟁하며 서로 살생을 벌일것이 아니라, 포르투갈인들의 모범을 따라서, 만일 방대한 영토가 팀이 난다면 외국 땅을 정복하려 나서라고 갈파하면서 아프리카 대륙의 지하에는 눈부신 광맥들이 숨어있고 아시아와 다른 신대륙에도 경작할 땅이 많이 있으니, 해외로 진출하도록 권면한다. 그러면서도 포르투갈 국내에도 기독교도들의 심한 내홍(内訌)이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한다.

그러나 오, 얼빠진 자들아! 그대들 자신의 피에  
 Mas, enquanto que cegos e sedentos  
 굶주려 눈이 멀어, 이 작은 루지타니아국내에도  
 Andais de vosso sangue, ó gente insana,  
 기독교도들의 이러한 만용이 없지 않을 것이야!  
 Não faltaram cristãos atrevimentos  
 아프리카에는 바다의 기지들이 있고, 아시아에는  
 Nesta pequena casa lusitana.  
 다른 모든 것 보다 빼어난 땅이 있으며, 세상의

De África tem marítimos assentos;  
반(半)의 반이 될 신대륙에는 개간할 넓은 땅이  
É na Ásia mais que tódas soberana;  
펼쳐져 있건만, 그런데도 다른 세상이 있다하면  
Na quarta parte nova os campos ara;  
마다않고 또 뻔칠 형세로구나.(VII, 14)  
E, se mais mundo houvera, lá chegara.(VII,14)

16세기 상반기의 르네상스 사조가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하여 비판정신과 관찰에 의한 새로운 인식기준들이 대두하자, 서구인들은 자연을 발견하고 정복하는 것이 ‘근대인’의 임무로 판단했던 것을 카몽이스 또한 그대로 지지했음을 밝혀주는 대목이다. 비록 그는 인간의 끝없는 과욕을 비판하긴 했지만, 그러한 공격적 사조의 연장선상에서 동양을 거부감없이 꾀정복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서사시속에서 포르투갈 민족의 동양진출이 남긴 찬행행위들은 위업(偉業)으로 미화(美化)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카몽이스는 바다의 여신(Tetis)이 냉은 무수한 딸들 가운데 하나인 님프(sirena)가 예언하는 형식으로 역대부왕들의 침략적 행적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언이란 속성이 담고 있듯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예시함으로써 시인 자신은 현장에 없었다는 확신을 강하게 심어주면서, 미래의 사건내용들이 아직 밝혀진 것이 아닌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상황을 활용하였다. 예로써, 가장 만용을 부렸던 마르팅 아폰수 디 소자 부왕의 행적을 어떻게 미화했는지 보기로 하자.

공해상에서 프랑스해적을 격파하여 웅장함으로써  
Das mãos do teu Estevão vem tomar  
이미 브라질에서 유명해질 사람이 그대의 ‘에스테방’의  
As rédeas um, que já será ilustrado  
손에서 통치의 고삐를 인계받을 것이야. 그후, 이사람이  
No Brasil, com vencer e castigar  
인도양의 총사령관이 되어, 기고만장하게 무장을 갖춘  
O pirata Francês, ao mar usado.

'다망'항의 성벽을 기어올라 남 먼저 문을 열어제치며  
Depois, Capitão-mor do Índico mar,  
입성할 때, 무수한 포화와 화살의 세례를 받을 것이야.(X, 63)  
O muro de Damão, soberbo earmado,  
Escala, e primeiro entra a por ta aberta,  
Que fogo e frechas mil terão coberta.(X, 63)

매우 거만한 '감바야'왕도 이사람에게는 비옥한  
A este o Rei Cambaico soberbíssimo  
'다우'항에 요새의 설치를 허가할 것이나, 매우 힘센  
Fortalez dará na rica Diu,  
'무길'제국에 대항해서 왕권을 지키는 일에 이사람의  
Por que contra o Mogor poderosíssimo  
도움을 얻어내기 위해서지! 그 다음은 그의 강인한  
Lhe ajude a defender o senhorio.  
담력을 이용해서, 칼리쿠트의 이방인 왕이 넘보지  
Despois irá com peito esforçadíssimo  
못하게 막아낼 속셈이야. 이렇게 침입자들 모두에게  
A tolher que não passe o Rei gentio  
파로 칠갑하며 퇴각하도록 만들어 놓을 것이야.(X, 64)  
De Calecu, que assi com quantos veio  
O fará retiar, de sangue cheio.(X, 64)

'레펠링'도시를 격파하여 그왕과 무리를 도주하게  
Destruirá a cidade Repelim,  
만들 것이며, 그 다음에는 코모링 갑(岬)근처에서  
Pondo o seu Rei, com muitos, em fugida;  
큰 무훈을 세울 것이니, 진노하는 포화와 무기로써  
E despois, junto ao Cabo Comorim,  
세상을 무찌를 것을 자신하는 사모링의 주력함대를  
Uma façanha faz esclarecida;  
격멸할것이야. 바로 '배아달라'항구가 자신의 해안에서  
A frota principal do Samorim  
이런 전쟁의 광경을 목격하게 될것이야.(X, 65)  
Que destruir o mundo não duvida,  
Vencerá co'o furor do ferro e fogo.  
Em si verá Beadala o Márcio jôgo.(X, 65)

인도에서 이렇게 모든 적군을 소탕한 다음, 흘(笏)을  
Tendo assi limpa a Índia dos inimigos,  
잡고서 통치에 임할 것인즉, 어떤 반대나 위험도 당하지  
Virá despois com ceptro a governá-la  
않게 될꺼야. 모두가 그를 두려워 할것이며, 어떤 불평도  
Sem que ache resistência nem perigos,  
내뱉지 못할꺼야. 오직 ‘바티칼라’ 항구만이 ‘베아달라’가  
Que todos tremem dele e nenhum fala.  
앞서 목격한 준엄한 징벌을 시험해 보고자 바랄뿐이요,  
Só quis provar os ásperos castigos  
그 때문에 시내가 온통 피와 시체들로 쌓이면서, 포화로  
Baticalá, que vira já Beadala:  
도시는 박살이 나고 추악한 물골이 될것이야.(X, 66)  
De sangue e corpos mortos ficou cheia  
E de fogo e trovões desfeita e feia.(X, 66)

이룩한 공적 덕분에 이사람은 마르스로부터 이름을  
Este será Martinho, que de Marte  
따 와서 ‘마르테뉴’로 불릴것이구만! 어전에서는  
O nome tem co'as obras derivado;  
매우 사려깊고 현명했던 것에 못지않게, 전쟁에서는  
Tanto em armas ilustre em toda parte,  
가는곳마다 용맹을 떨칠 것이야.(X, 67)  
Quanto, em conelho, sábio e bem cuidado.(X, 67)

이렇게 시인은 악명높은 마르팅 아폰수 디 소자를 ‘백전연마의 명성’이 드높은 용사들’ 반열에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왕들과 지휘관들의 침탈행위도 한결같이 미화하여 포르투갈 민족의 자긍심에 누(累)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적이 되게 소개한 것은 그의 조국을 위한 애국행위로, 적어도 오늘의 포르투갈민족은 평가할 것이다.

동시에 그들의 만행과 약탈의 무대가 된 동양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악에 물든’ 야만의 땅으로 추락하여 기독교의 교화가 아니면 구제의 길이 없다는 정신이 일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바스쿠 다 가마를 데리고 섬의

가파르고 험준한 숲속으로 들어가서 공중에 떠 있는 큰 옥(玉)으로 된 지구의(地球儀)를 가르키며 세상의 구조를 설명해 준다. 일월성신과 지구의 생성질료 그리고 세계의 자리를 소상히 소개하면서 동남아 여러지역의 지리와 악(惡)에 물든 관습을 설명한다. 아래에 벵갈만의 한 지역(Pegu)에 관한 장면이 흥미롭다.

아라캉왕국과 일찍이 괴물들이 득실대던  
Olha o reino Arrácaoñ olha o assento  
페구왕국의 위치를 볼지어다. 괴물들이란  
De Pegu, que já monstros povoaram,  
바로 어느 여성과 수개가 함께 살면서  
Monstruos filhos de feio ajuntamento  
별인 추악한 교접에서 생긴 자식들이지.  
Duma mulher e um cao, que sós se acharam.  
대(代)를 잇는 연장에 소리나는 방울을  
Aqui soante arame no instrumento  
달아 놓는 관습을 여왕이 집요하게 보급  
Da geraçao costumam, o que usaram  
하였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저토록 고약  
Por manhada rainha que, inventando  
한 관습을 축방하고자 했던 것이야(X, 122)  
Tal uso, deitou fora o error nefando.(X, 122)

그래서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시인은 남의 땅, 남의 나라 이야기를 전달하는 장면에서 호기심이 많은 외국사진기자나 현장'르포'기자처럼 동양의 부정적인 장면이나 전설들을 강조하여 묘사함으로써 유럽의 독자들에게 동양에 관한 한, 원시의 대륙, 이교도의 땅이란 이미지를 깊이 심었다. 이어서 달변의 여신은 싱가풀과 말라카해협, 라오스, 중국의 만리장성(X, 130)과 일본(X, 131)까지 단편적으로 지적하지만, 결국 동양은 포르투갈 용사들의 잔인한 만행을 실제로 과시하며 실험하는 공간으로 수용될 뿐이다.

### 3) 카몽이스와 사랑의 미학

포르투갈의 해외진출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의 전파를 앞세운 정복과 침탈의 속성을 띠고 있지만, 시인은 이러한 위업(?)을 세운 용사들에게 보상으로 사랑의 쾌락을 제공한다. 천신만고 끝에 인도를 발견한뒤에 귀국항해에 오른 바스쿠 다 가마와 그의 부하들을 ‘사랑의 섬’으로 안내해서 바다의 넘프들과 한시적으로 마시며 즐기도록 배려한 것이다(제 9장).

고대의 영웅서사시들이 다루지 않았던 사랑의 미학을 펼치면서 포르투갈 용사들이 넘프들과 낭만속에 풍요로움이 넘치는 낙원에서 결혼하는 장면을 연출하여, 르네상스의 인본사상을 반영하면서 페트라르카풍의 화려한 시각적 환상과 애로틱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신화와 상상력의 절묘한 접합은 주인공들이 인간으로서 불멸의 왕국(명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sup>10)</sup>.

아침의 눈물에 촉촉히 젖은 백합과 향초(香草)의에  
A cándida cecém, das matutinas  
라토나의 아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히야신스꽃잎 속의  
Lágrima, e a manjerona;  
글씨들이 보이네. 또 클로리스는 뜻과 일과 들국화를  
Vem-se as letras nas flores Hiacintinas,  
놓고 포모나와 경합을 벌이는 것이 눈에 띄는구나.  
Tão queridas do filho de Latona;  
그리하여 새들은 지저귀면서 공중을 날고, 짐승들은  
Bem se enxerga nos pomos e boninas  
즐겁게 땅위를 가득 메우는구나.(IX, 62)  
Que competia Clóris com Pomona.  
Pois, se as aves no ar cantando voam,  
Alegres animais o chão povoam.(IX, 62)

백설처럼 흰 백조는 물길을 따라가며 노래하니,  
A longo da água o níveo cisne canta,  
나뭇가지의 꾀꼬리가 그에게 맞장구를 치는구나.  
Responde-lhe do ramo Filomela;

10) Segismundo Spina; Introdução sobre Os Lusíadas(루지아다스, 김창수 역, 1988, p.8)

악테온은 맑은 물속에 곱게 비쳐있는 자신의  
Da sombra de seus cornos não se espanta  
두 뿔모습에도 놀라지 않네. 이쪽의 빽빽한  
Acteon na água cristalina e bela.  
풀섶에서 뛰쳐나온 것은 민첩한 토끼런가,  
Aqui a fugace lebre se levanta  
아니면 겁먹은 가젤인가. 저쪽의작은 새들은  
Da espessa mata, ou tímida gazela;  
먹이를 입에 물고 날렵하게 사랑하는 보금자리로  
Ali no bico traz ao caro ninho  
날아 드는구나.(IX, 63)  
O mantimento o leve passarinho.(IX, 63)

싱그러움이 이처럼 충만한속에 아르고나우타들 2세들이  
Nesta frescura tal desembarcavam  
하선(下船)하고 있었으니, 그곳의 숲속에는 일찍부터  
Já das naus os segundos Argonautas,  
아름다운 님프들이 경망한 여인처럼 쏘다니고 있었네.  
Onde pela floresta se deixavam  
어떤 축은 달콤한 현악기를 타는가 하면, 다른 축은  
Andar as belas deusas, como incautas.  
소리도 맑은 피리와 하프를 연주하고, 또 다른 축은  
Algumas, doces cítaras tocavam,  
황금의 활로서 정말로 추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짐승을  
Algumas, harpas e sonoras frautas;  
뒤쫓는 흉내를 내는 것이었네.(IX, 64)  
Outras, co'os de ouro, se fingiam  
Seguir os animais que não seguiam.(IX, 64)

이상과 같이 ‘사랑의 섬’의 분위기와 님프들과 백사람들의 자연스런 만남을 서두로 해서, 부끄러워 도망치는 여인들과 추격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소개한뒤에, 시인은 진솔하게 남녀가 하나로 되어 즐거움과 쾌락을 만끽하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아름다운 님프는 그제사 도망치던 걸음을 멈추고서  
Já não fugia a bela ninfa tanto,

그녀를 쫓다 슬픔에 빠진 자에게 상냥해 지는구나.  
Por se dar cara ao triste que a seguia,  
마치 그가읊던 사랑의 탄식, 달콤한 여운의 노래를  
Como por ir ouvindo o doce canto,  
듣고자 하는 자세일세. 이미 조용히 차분해 진 얼굴을  
As namoradas mágoas que dizia.  
돌리더니, 온통 웃음과 기쁨으로 충만된 몸을 정복자의  
Volvendo o rostro, já sereno e santo,  
발치에 쓰러뜨리니, 온몸은 녹아 순수한 사랑이 되누나.(IX, 82)  
Tôda banhada em riso e alegria,  
Cair se deixa aos pés do vencedor,  
Que todo se defaz em puro amor. (IX,82)

오! 숲속에서 벌어지는 입맞춤이 얼마나 격렬하나!  
Oh! Que famintos beijos na floresta,  
소리로 들리는 신음, 또한 얼마나 귀여우나!  
E que mimoso chôrô que soava!  
몹시도 다정한 애무에다 순박한 격정은 그순간에  
Que afagos tão suaves, que ira honesta,  
흡족한 미소로 바꺼네. 비너스가 기꺼운 마음으로  
Que em risinhos alegres se tornava!  
불태우는 오전과 오후의 열기속에 그들은 열락을  
O que mais passam na manhã e na sesta,  
훔껏 맛보누나. 그일은 상상보다 차라리 경험해  
Que Vênus com prazeres inflamava,  
보는 편이 더욱 좋아. 만일 직접 해볼 수 없다면  
Melhor é experimentá-lo que julgá-lo;  
하는 수 없이 상상이나 해 볼 일이고!(IX, 83)  
Mas julgue-o quem não pode experimentá-lo!(IX, 83)

마침내 아름다운 님프들은 사랑하는 항해자들과  
Desta arte, enfim, conformes já as formosas  
이런 방식으로 한몸이 되어, 월계수와 황금과  
Ninfas co'os seus amados navegantes,  
풍요로운 꽃으로 만든 화환으로 그들을 꾸며주네.  
Os ornam de capelas deleitosas  
격식을 갖춘 엄숙한 말(言)로써 백옥같은 손들을

De louro e de ouro e flores abundantes.  
그들에게 내미니, 살아서나 죽어서나 절개와 기쁨이  
As mãos alvas lhe davam como espôsas;  
넘치는 영원한 동반자임을 약속하는구나.(IX, 84)  
Com palavras formais e estipulantes  
Se prometem eterna companhia,  
Em vida e morte, de honra e alegria.(IX, 84)

바로 위대한 불멸의 업적으로 인간이면서 신(神)의  
Não eram senão prêmios que reparte,  
기예와 노력을 쌓아 올린 용사들에게 세상이 주는  
Por feitos imortais e soberanos,  
상이 아니고 무엇이야! 쥬피터, 머큐리, 페보, 마르스  
O mundo co'os barões que esfôrços e arte  
그리고 에네아스와 키리노, 또한 테베의 두 신(神)과  
Divinos os fizeram, sendo humanos.  
세레스, 다이아나와 팔라스, 쥬노 등 모두가 연약한  
Que Júpiter, Mercúrio, Febo e Marte,  
인간의 육신으로 해서 만들어 졌던 것이지.(IX, 91)  
Enéias e Quirino e os dois Tebanos,  
Ceres, Palas e Juno com Diana,  
Todos foram de fraca carne humana.(IX, 91)

카몽이스는 신화의 세계 속으로 포르투갈 민족의 위대성을 수용해  
가는 과정에서 사랑의 묵약을 처방하여, 인도에서 자신이 처했던 모  
순된 현실(antinomia)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詩)적 분위기를 자아내  
는데 천재성을 발휘하였다. 비록 돈 키호테의 깨뜨릴 수 없는 환상  
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도 이렇게 환상을 쫓는 상상의 세계를 만  
들었다. 그러나 시인으로서 그의 인간적 매력은 지상에서 맺어지는  
현실적 사랑이 감미로움과 잔인함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엘레지  
풍으로 잘 묘사한데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 포르투갈 왕자(Dom Pedro)가 평민의 딸(Inés de Castro)과 맺었던 은밀한 사랑이 부왕(父王)에 의해서 파멸로 치닫는 비극성은 이서사시에서 소개하는 '이

루지 못한' 사랑의 노래들 가운데 백미(白眉)로 꼽힌다.

그대여, 오로지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휘젓는  
Tu só, tu, puro amor, com força crua,  
잔인한 힘의 순정이여! 배반하는 원수처럼  
Que os corações humanos tanto obriga,  
고통의 사망을 유발하는 추악한 사랑이여!  
Deste causa à molesta morte sua,  
그대의 갈증은 도무지 슬픔의 눈물로는  
Como se fora perfida inimiga.  
달랠길이 없으니, 실로 가혹한 폭군이여!  
Se dizem, fero Amor, que a sede tua  
그대의 제단이 인간의 피로 물드리고자  
Nem com lágrimas tristes se mitiga,  
원하는 탓이로세!(III, 119)  
É porque queres, áspero e tirano,  
Tuas aras banhar em sangue humano!(III, 119)

예쁜 이네스는 눈을 멀게하는 사랑의 기쁨에  
Estava, linda Inés, posta em sossego,  
빠져서 평화로이 방년(芳年)의 달콤한 과일을  
De teus anos colhendo doce fruto,  
따먹고 있었지만, 운명은 오랜 지속을 방해했네.  
Naquele engano da alma, ledo e cego,  
그래서 아릿따운 두 눈에서 흘린 눈물이 마른적  
Que a Fortuna não deixa durar muito,  
없는 몬데구 강(江)의 들판에서 가슴속에 간직한  
Nos saudosos campos do Mondego,  
왕자의 이름을 산천초목에 알려주며 지냈다네.(III, 120)  
De teus fermosos olhos nunca enxuito,  
Aos montes insinando e ás ervinhas  
O nome que no peito escrito tinhias.(III, 120)

순수한 사랑이여! 상냥한 얼굴이 왕자를 지배하니  
De outras belas senhoras e Princesas  
다른 예쁜 공주나 규수와의 원앙금침을 물리치면서

Os desejados tálamos enjeita,  
모두가 탐내는 모든 것을 왕자는 멸시하누나.  
Que tudo, enfim, tu, puro amor, desprezas,  
이런 별난 애정을 누여겨 본, 사려깊은 부왕(父王)은  
Quando um gesto suave te sujeita.  
노경에 치해서 백성들의 협답과 결혼을 마다하는  
Vendo estas namoradas estranhezas,  
왕자의 고집을 주목했던 결과로써,(III, 122)  
O velho pai sesudo, que respeita  
O murmurar do povo e a fantasia  
Do filho, que casar-se não queria,(III, 122)

애정의 포로가 된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Tirar Inês ao mundo determina,  
이네스를 세상에서 없앨 것을 작정했으니,  
Por lhe tirar o filho que tem preso,  
굽힐 줄 모르고 타오르는 사랑의 불길을 꺼자면  
Crendo co sangue só da morte indina  
부당하지만, 죽음의 피밖에 없다고 믿었구나.  
Matar do firme amor o fogo aceso.  
모로족의 분노에 찬 중압(重壓)을 배겨났던  
Que furor consentiu que a espada fina,  
예리한 장검(長劍)이 나약하고 힘없는 여인을  
Que pôde sustentar o grande peso  
해치고자 쥐어졌으니, 이 무슨 미친 짓이냐?(III, 123)  
Do furor Mauro, fosse alevantada  
Contra uma fraca dama delicada?(III, 123)

저런 무도한 살륙자들이 열띤 분노로 들떠서  
Tais contra Inês brutos matadores,  
훗날의 보복을 돌보지 않고, 이네스에 가했던  
No colo de alabastro, que sustinha  
저리도 모질게 굴던 칼들은 조각품을 받쳐주던  
As obras com que Amor matou de amores  
흰 석고의 목에서, 그녀의 두 눈에서 물기를  
Aquele que depois a fez Rainha,  
공급받던 흰 꽃들속에서 떡을 감게 되었으니,

As espadas banhando e as brancas flores,  
결국 죽은 후에 왕비로 추존한 그분이야 말로  
Que ela dos olhos seus regadas tinha,  
사랑중의 사랑을 죽인 꽃이 되었네.(III, 132)  
Se encarniçavam, férvidos e irosos,  
No futuro castigo não cuidosos.(III, 132)

페트라르카 이후로 최고의 사랑의 시인으로 평가받는 카몽이스는 사랑의 감미로움보다 사랑의 미완성(amor no correspondido)이 안겨주는 서글픔과 연인들간에 사별(死別)의 비극성을 노래하는 기술이 매우 빼어났다. 그자신이 무수한 여인들과의 운명적 만남에서 얻은 경험이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지로 옮겨 놓았던 것이다. 특히 마카오에서 고아항구로 귀환시에 그가 대동하다가 난파를 당하여 죽게 만든 애인(Dinamene)을 테마로 한 소네트는 시인이 누리는 사랑의 명성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아이, 나의 디나메니! 이렇게도 그대  
Ah! minha Dinamene! assim deixaste  
사랑하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나를  
Quem não deixara nunca de querer-te!  
정녕 떠나갔는가? 아이, 나의 님프여!  
Ah! Ninfá minha, já não posso ver-te!  
그대를 더 볼 수 없게, 후딱 이승을  
Tão asinha esta vida desprezaste!  
이별하다니! 어째서 그대를 결코 놓지  
¿Como já para sempre te apartaste  
않을 사람옆을 영영 떠나간 것이나?  
De quem tão longe estava de perder-te?  
이곳의 파도가 너로 해서 슬픔에 잠긴  
¿Puderam estas ondas defender-te  
나를 그대가 못보게 막을상 싶은가?  
Que não visses quem tanto magoaste?  
모진 죽음이 한순간이나마 그대에게  
Nem falar-te sómente a dura Morte  
말할 순간도 주지않고, 너의 두 눈위로

Me deixo, que tão cedo o negro manto  
 한순간에 검정 망토로 덮어버렸구나!  
 Em teus olhos deitado consentiste!  
 오, 바다여! 하늘이여! 오, 나의 불행이여!  
 Oh mar! oh céu! oh minha escura sorte!  
 장차 안게될 큰 고통이 아무리 무겁다해도  
 ¿Que pena sentirei valha tanto,  
 이슬픈 심정을 가볍게 누를 수 있을까?  
 Que inda tenha por pouco viver triste? 11)

그런데 이상과 같은 사랑의 양면성을 다룬 시(詩) 세계를 떠나서, 일단 현실로 돌아오면, 카몽이스는 주변정세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지성인이었다. 그래서 이서사시의 끝부분을 보면, 시인은 자신의 개인적 재능의 한계와 포르투갈의 국력이 쇠잔해 가는 현실을 개탄하면서(제10장, 145연-156) 개인이나 민족이나 인간적 유한성에 얹매여 있음을 슬퍼한다. 이것은 르네상스정신에 기초한 인간능력의 무한성이 결국에 가서는 허구로 끝나고 마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대목으로, 묵시적으로 바로코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끝으로, 시인은 차선책으로 동 세바스티앙왕에게 간신들을 멀리할 것이며 어진 신하들의 자문을 받아들여 진취적인 성군의 정치를 꿔서 난국을 해쳐 나갈것을 건의한다.

## V. 맷는말

이 서사시는 이베리아반도 문학사에서 1570년대에 나온 두편의 영웅서사시들 가운데 하나이다. 다른 한 작품은 알론소 데 에르시야(Alonso de Ercilla, 1533-94)의 '라 아라우카나(La Araucana)'이지만, 16세기에 칠레의 원주민 아라우카노족을 정복하던 스페인 군대의 실제 전투와 사건들을 다루면서, 허구와 환상을 제외했기 때문에 시

---

11) Massoud Moisés; Ibid., p.134

(詩)적 상상력은 발견되지 않는다. 아울러 남아메리카의 한 지역(칠레)을 한정해서 작품의 무대로 설정한 점도 취약점으로 지적할만 하다<sup>12)</sup>.

그러나 작가는 원주민들의 용맹과 승리를 예찬하면서 카오플리칸(Caupolicán)주장의 최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정복군의 잔인성을 폭로하였다. 피정복민을 동정하며 아끼는 정신이 흐른다. 이러한 원주민을 찬양하는 입장은 현대에 와서도 루벤 다리오(Rubén Darío, 1867-1916)같은 위대한 시인들에 의해 표현되도록 영향을 끼쳤다. 특히 이 시인의 ‘카우풀리칸’의 제목을 단 소네트는 바로 아라우카노족에 대한 예찬이자,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의 자부심을 고무하는 대표적 서정시이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우스 루지아다스’는 전편을 통해서 백인종(포르투갈민족)의 해외정복을 찬양하는 주제를 담고서 아프리카와 인도 그리고 동양을 대공간으로 수용한 전대미문의 대서사시이다. 하지만 유럽을 제외한 다른 대륙들이 이교도의 땅인점을 강조하여 기독교를 전파하여 개종을 해야만 된다고 주장하면서 동양인들의 위상을 과소 평가한 점은 콜럼버스의 신대륙발견이후 서구열강들이 한결같이 앞 세운 제국주의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시인의 동양관 혹은 세계관으로 보고 싶다.

그것은 신앙에서 가톨릭교회가 이슬람과 동양의 다신교를 승리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해외식민지개척 및 정복을 합리화하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동양인들과의 호혜정신에 입각한 교역을 주장하면서도 월등하게 우수한 무력을 과시하는 포르투갈인들의 공격적 행위를 시인은 찬양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나름대로 시인은 동양의 진귀한 자연과 관습들을 호기심에 찬 눈으로 소개하면서 동양인들과의 인간적 사랑을 자신은 행동으로 보였다. 실제로 그가 마카오 체류시에 작시했던 이 서사시의 원고 뭉치를 휴대하여 인도로 귀환하는 도중에 메콩강 유역의 캄보디아만

12) Alfredo Veiravé; Literatura Hispanoamericana, Kapelusz, Bs.As, p.32 1976.

(灣)에서 난파를 당해 바다에 빠지자, 한손에는 시(詩)원고를 쥐고, 다른 팔로는 중국출신의 연인(Dinamene)을 안고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애인을 버리고 그 팔로 해엄쳐 살아났던 사건(X,128)과 시인이 영주 귀국할 때, 자바출신의 하인을 대동했다는 사실<sup>13)</sup>이 이를 뒷바침 해준다.

결론적으로, 이시인이 훗날 바다에서 죽게 만든 옛 중국연인을 추모해서 쓴 소네트 속에 신앙과 피부색을 초월해서 쏟은 순애보적 사랑을 고백했던 점은 그의 피부색을 초월한 인간적 사랑의 소유자임을 잘 설명한다.

이렇게 사랑의 화신으로서 카몽이스는 수없이 많은 서정시속에서 자신의 못다 누린 사랑의 슬픔과 환희를 노래하였다. 그리고 서양문학사에서 마지막 교양서사시로 평가받는 ‘우스 루지아다스’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영웅서사시이지만, 보다 인간적인 내용을 담은 대서사시로서 동양을 주된 공간으로 활용하였음이 우리에게는 큰 관심이 되지 아닐 수 없다.

끝으로, 오늘날 브라질에서는 이 서사시를 학생들에게 교육함에 있어 역사적 사건들을 다룬 부분들은 생략하고서 인간들의 사랑과, 신화에 얹힌 삽화들, 바다의 폭풍과 해난사건들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끝-

---

13) Massaud Moisés; Ibid., p.14

## 참고문헌

- Camões, Luís de; Os Lusíadas, Edição Saraiva, São Paulo, 1960.
- Ercilla y Zúñiga, Alonso de ; La Araucana, Porrúa, México, 1975.
- Moisés, Massaud; Lírica de Camões, Cultrix, São Paulo, 1963.
- Ribeiro, João; História do Brasil, Livraria Francisco Alves, Rio de Janeiro, 1935.
- Sanz, Carlos; 1<sup>a</sup> Historia de China de Bernardino de Escalante, Librería Vitoriano Suárez, Madrid, 1958.
- Silveira Bueno, Francisco da; El comentario de Os Lusíadas, Edição Saraiva, 1959.
- Veiravé, Alfredo; Literatura Hispanoamericana, Kapelusz, 1976.
- Nueva Enciclopedia Larousse, Barcelona, Madrid, 1984.
- 김창수 옮김; 루지아다스(카몽이스 원작), 삼영서관, 서울, 1988.
- 정운용, 김창수 옮김; 東方見聞錄(마르코폴로 원작), 을유문화사, 1983.